

韓國의 頭腦 KIST

所長 韓相準 博士를 찾아서

8.3 긴급 조치와 10월 維新以後 科學技術 革新의 必要性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에 本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장 한상준 박사를 찾아 KIST의 事業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았다.

기술 혁신은 長期的 계획

韓相準 博士의 구수한 목소리가 우선 자상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검은 안경너머로 과학인의 예지를 번득이며 「國內産業界는 적극적 投資에 인식하다」고 지적하시는 韓博士의 論理는 예리하기만 하다.

國內産業人들은 技術革新을 위한 자금 투자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며 또한 이에 따르는 所得과 이윤의 문제로 不安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專門家의 精確한 知識과 정보를 구하기에 앞서 과거의 상황과 側近者의 말만으로 實態를 理解하려는 傾向이 짙다고 한다.

또한 기술 혁신을 계획할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진 眼目에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을 계획하지 못하고 오직 현실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國內産業界의 形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다.

뿐만아니라 국내산업인들은 국내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다. 기술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 기술이 적합하며 또한 확실한 보장이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산업체들이 外國人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時間的 차질이 생기며, 그 비용 또한 高額일 뿐더러 성과에 있어 100%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에 비추어 볼 때 國內 기술자의 활용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8.3 긴급 조치 이후 기술 혁신자금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상승되었고, 10월 유신후 기술 혁신 문제가 진실한 면에서 검

토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국내 산업계의 動向에 발맞추어 KIST의 課題는 더욱 무거워져간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기술에 대한 不信의 풍토가 만연해있으며 또한 KIST의 활동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現 實態에 對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를 위한 적극적 공보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힌다.

전자공업은 輸出戰略産業

또한 韓박사는 대통령 年頭 기자 회견에서의 重化學工業政策선언을 환기하면서 KIST에서의 重要한 기술개발 품목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重化學工業이라면 보통 금속 화학 기계 전자 등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공업이다.

이것은 정부의 100억弗 수출 계획의 약 1/4인 25억弗이 전자 공업 부문이라는 것을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 韓박사는 천연 자원이 不足하며 우수한 국민의 노동력이 충분한 韓國의 實情을 감안할 때 전자공업은 대단히 有效適切한 공업이라고 시사하면서 KIST의 역점은 바로 전자공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T.V는 전자공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T.V는 世界 35억 인구의 필수품일 뿐더러 그 종류와 모양에 있어 매우 다양하여 T.V 수요의 신장도는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서 연구 개발 중인 벽걸이 T.V (Handle이 필요없이 벽에 걸어놓고 시청할 수 있는 T.V)를 비롯하여 「칼라 T.V」 「VTR T.V」 등의 개발과 연구는 우리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韓박사는 第2 중합제철계획의 달성을 다짐하면서 이 계획이 완성된다면 80年代의 철 생산은 1300만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日本의 1억톤 생산에 비하면 10%에 불과한 것이라고 頂上에의 길이 요원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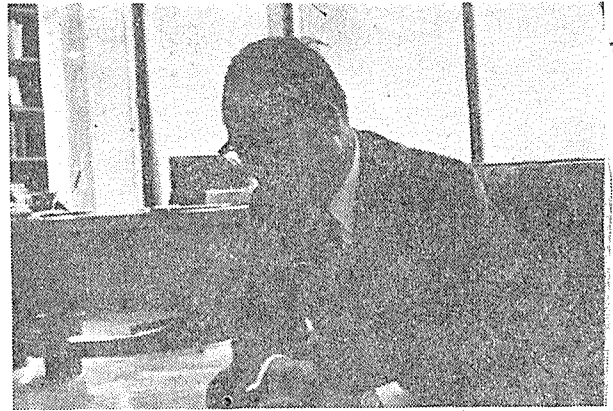
이와 같은 重化學工業 개발과 더불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계획이 해양과학공업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물공업은 약간 저저분한 산업이긴 하지만 약 10억弗이 여기에 해당되어있는 만큼 그 연구와 혁신을 서둘러야 할 공업이라고 韓박사는 밝힌다.

이외에도 國內產業界에서 注目되고 있는 것으로는 金型 기술의 빈약을 든다. 즉 내부는, 外國商品보다 우수하지만 그 외형에 있어 초라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KIST에서는 올 계획 사업으로 금형 기술의 개발 및 혁신을 추진해야겠다는 韓박사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前記한 바와 같이 막중한 임무와 과제가 KIST에 賦課되어 있다. 그러나 外國에 비해 少額의 연구비가 할당되어 있는 現實情에 비추어 불매 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韓박사는 정부측에서 과감히 해외 기술 협력을 추진시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System을 활용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할 뿐 아니라, 海外에 나가 있는 국내 기술자를 歸國시켜 先進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한 方便이라고 말씀하신다.

끝으로 72年度의 KIST 사업중 가장 보람적하고 자랑스러운 사업을 說明해 달라는 記者의 요청에 韓박사는 72년이야말로 KIST가 커지기 시작한 연대라고 밝히면서 중요 실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重化學工業 연구가 시작 되어 「파일롯·플랜」을 비롯한 5개의 공장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계약 분야에 있어서도 외국 기술의 도입에 앞서 KIST의 기술과 정보를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내의 각부분 전문 기술자가 舍心하여 공장을 가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原料의 감정 분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外國에서 求해야만 되는 줄 알았던 重要原料의 分析 결과 그것이 바로 國內에서 市販되고 있는 것임을 밝혀냈을 때 KIST 연구원들은 물론 製藥界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KIST의 업무중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전자 공업 부문이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pocket用 전자 계산기의 개발로 國內에서도 전자 공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예전 같으면 國內技術로서는 불가능한 줄만 알았던 전자 공업에 새로운 자신을 불어넣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韓박사는 전자 계산기의 활용을 지적하면서 이야말로 KIST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만족해하신다. 오늘날 국가 예산이 전자 계산기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전화 요금도 전자 계산기로 계산되고 대학 입학 예비고사 등이 전자 계산기로 採點되고 있음은 海外에서도 驚異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韓國 젊은이들의 소질이 뛰어난을 보여준은 물론 무엇보다도 世宗大王의 恩德이라고 감사해하신다. 즉 우리 민족 固有의 자랑인 한글이야말로 전자계산기엔 英文보다 더 適切한 文字로서 어느 나라의 文字보다 科學적이고 빠르게 전자계산기에 適用될 수 있는 文字라는 것이다. KIST의 전자계산 업무가 그렇게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따지고보면 모두 世宗大王의 偉業을 계승 받은우리 後孫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韓國人으로서의 自負와 긍지를 가져줄 것을 부탁하신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世界의 으뜸이랄 우리 한글!

한없이 밀려오는 뿌듯한 마음으로 500년 蒼生을 내다보신 世宗大王의 슬기를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記者는 연구실의 門을 나섰다.

世界 수준에 肉迫하려고 研究에 골몰하는 KIST의 브레인들— 이들이 모두 世宗大王의 지혜와 슬기를 이어받은 韓國의 「엘리트」라는 事實을 생각할 때 韓國의 科學도 머지않아 世界頂上에 오르게 되리라.